

대 사회적 자비행 실천 함께 다짐

전남북 사찰 및 단체 신년하례법회 열어

계사년 새해를 맞아 포부와 원력을 세우 보살행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호남 지역에서 봉행됐다. 태고종과 전북사암승가회는 법회에서 올해의 계획들을 발표하고 종단화합과 대중포교활성화를 다짐했다.

“이 상서롭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새롭게 나아가는 주인공이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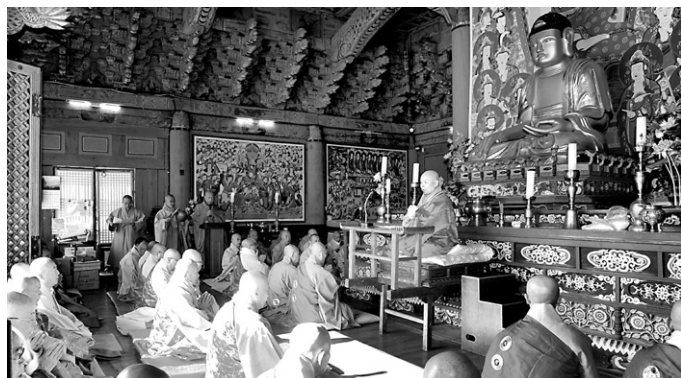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이 계사년 새해를 맞아 중정 혜초 스님 친견 신년하례법회를 지난 10일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세알삼배, 산축, 종정예하 신년하례, 청법계, 법어, 인사말 등이 진행됐다.

하례법회에는 중정 혜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중앙총회의장 도산 스님, 호법원장 운곡 스님,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조심원장 구산 스님, 각 지역 총무원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종단화합과 발전을 서원했다.

혜초 스님은 신년법어에 이어 종도들에게 “종단의 사부대중의 덕행으로 지난 한 해를 잘 보냈다. 올 해에도 화합하고, 위·아래가 잘 융통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전했다. 스님은 이어 “태고종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있다”며 총무원에서 종도 교육에 집중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인공 스님도 인사말에서 “올해에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이 종단과 불교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적 문화유산인 영산재 전수관 건립과 사회 포교역량을 강화해 대사회봉사활동과 불교문화의 대중성



혜초스님은 하례법회에서 “태고종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있다”며, 총무원에서 종도 교육에 집중해주시기를 당부했다(사진왼쪽). 전북사암승가회 신년하례법회에 신년법어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해 포교활동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스님은 이어 올해 선암사의 사업에 대해 “단기결제(안거)의 정기적 실시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영산재 홍보, 경대불사, 보살계 수계법회를 통해 교육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태고종...종도교육 집중하기로

총무원장 선거 앞뒤, 사찰 분한신고

전북사암승...지역별 신도조직 체계화

자원봉사,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발원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했다.

태고종은 올해 차기 종단을 이끌어갈 총무원장 선거와 각 지역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태고종 스님과 사찰에 대한 분한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가 열린 선암사는 향후 5년간 295억 원을 소요하는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주지 설운 스님은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지난 10월 17일 발표된 최종보고서에 의해 향후 5년간 진입로와 탐방로 정비를 비롯해 목조건축정비, 석조건축정비, 관공역여 조성, 광역관광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연차적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스님은 “선암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함

께 선암사의 역사문화경관이 보존되고, 진입로와 탐방로가 활성화, 성보박물관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스님은 이어 올해 선암사의 사업에 대해 “단기결제(안거)의 정기적 실시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영산재 홍보, 경대불사, 보살계 수계법회를 통해 교육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선암사에 대한 조계종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10인(조계종 5인, 태고종 5인) 위원회를 4인 위원회로 간략화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는 1월 5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 주관으로 신년하례 법회를 열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박성일 전북 행정부지사, 김승환 교육감, 송하진 전주시장, 이상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등 각 신년단체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복지활동을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전달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스님은 또 “소통과 민생 또한 중도사상을 통해 실현돼야 하며 국민화합과 동서화합에 전복 불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 지역 사찰주지스님들이 앞장서 신도님들의 교육과 포교, 대중교화사업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 신도회와 권역별 체계화된 신도조직으로 신도배가 운동을 전개, 전북불교자원봉사단 활동과 사업의 능동적 육성, 미래불교를 책임져야할 청소년 포교의 교두보 확보, 템플스테이를 문화포교의 모범 육성, 호국애민 사상을 고취하고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법과 포교의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익산 연교사 묘주 스님과 선교사 회관 스님이 모범사찰 표창을 수상했으며 각 분야별 신도조직을 모범적으로 이끌고 있는 안심사 일요법회 이완영 회장들에게 포교대상이 수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종제 전북지사장

광주, 다문화가정 위한 전래동화展

아시아박람회공동체, 불교국가 그림책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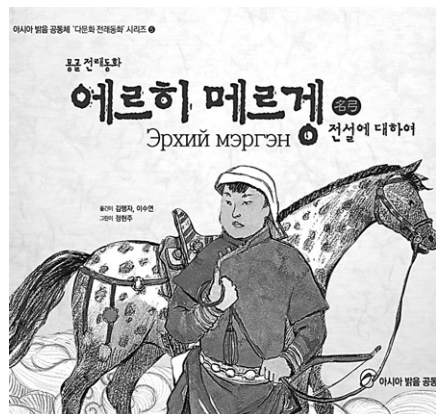
아시아의 다양한 전래동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아시아박람회공동체(대표 도제)는 지난 16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무등갤러리에서 전래동화 삽화전시회 ‘눈으로 말하는 세계 속의 숨겨진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일반 시민들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한국문화의 확실적인 교육방식으로 인해 부모의 출신국 문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과 함께 아시아박람회공동체에서 출판한 중국, 베트남, 일본, 스리랑카, 몽골전래동화의 그림책원화를 가지고 전시회가 진행됐다.

특히 지역 예술 작가들과 결혼이주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해져 뜻깊은 전시회를 꾸렸다.

그림책 작가인 이미경(서림초교:베트남동화삽화-마술석교)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부가 다르다고 외면 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이



몽골전래동화 '에르히 메르케'

며, 한국사회의 온정을 알려주고자 행사를 준비 했다”고 했다.

이날 전시된 동화책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정현주 화가(몽골동화-에르히메르케·사진)를 비롯하여 번역작가와 삽화작가들이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아시아박람회공동체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나라의 동화책을 출판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도서로 꾸민 다문화도서관을 개관 준비중에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자예술인 요양병원서 봉사

“병마에 시달린 어르신들에게 새해의 희망과 즐거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광주전남지역 불자공연예술봉사단(단장 이현하)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 임동에 위치한 효자요양병원을 방문해 100여명 어르신들에게 위문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은 광주전남지역 포교사와 불자예술인으로 구성된 불자공연예술봉사단이 부채춤(아울림국악예술단)과 교방무, 각설이, 전통가요 등을 펼쳐 오랜 병마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환기로운 시간을 선사했다.

행사를 개최한 이현하 단장은 “새해를 맞아 그리운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적절하게 보내시는 어르신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효자요양병원에서 광주불자예술인들이 병마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드리고 싶어 행사를 개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불자공연예술봉사단은 포교일선에

서 봉사 활동과 노인요양시설 위문 공연 등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포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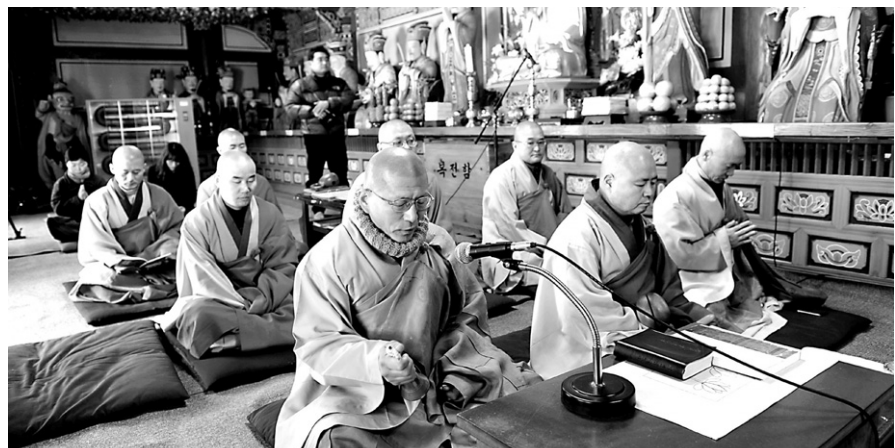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불총림 26일 방장후보 선출 산중총회

고불총림 백양사 차기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산중총회가 1월 26일 오후 1시 경내 교육관에서 열렸다.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스님 △당해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급 이상 중무원 상당해교구 본말사 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 스님 △당해 교구 말사주지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비구 스님 △당해 교구에서 4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당해 교구 선원에서 8년 이상 성만스님 중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스님 등이다.

이은 기자



1월 8일 백양사 스님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49재를 집전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고로 인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의 닳을 위로하는 49재가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됐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1월 8일 경내 명부전에서 유가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49재를 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49재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마을 주모(60) 씨 집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 화재가 발생해, 주모 씨는 얼굴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고 그의 아내 김모(58) 씨와 외손자(6)가 사망한 사고가 발

생한 희생자들의 천도제이다. 이 사고는 6개월 전기요금 15만원 내지 못해 전기가 단전된 집에서 촛불 켜고 살았던 유가족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백양사는 최근 참사참모동 결사법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주 주모씨를 위로방문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숨진 가족의 49재를 약속했다.

이날 천도제에는 주지 진우스님을 비롯해 유가족 등 2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마듭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